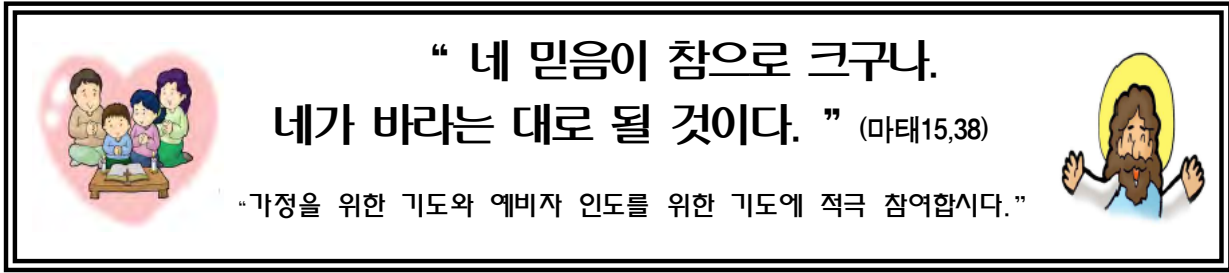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하나) 가정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충남 솔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김재준과 어머니 고 우르술라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열여섯 살인 1836년 사제가 되고자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떠났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그는 선교 사제의 입국을 돕고자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는 다시 선교 사제를 영입하려다가 1846년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1846년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의 시성식을 거행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정하상 바오로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오,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편지의 일부분).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구) "사람을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없음.
- 일할 것이 많아 힘들 수 있습니다.
- 어려움에도 끝까지 참으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 계약금 : 하느님의 자녀로 입적
- 일 당: 은총
- 퇴직금: 영원한 생명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287	212	165, 174	28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07/08)	차호섭(요 셉)	안동현(프란치스코)
	차서은(세라피나)	안지영(가타리나)
다음주일 (07/15)	이우영(가브리엘)	홍순익(마르티노)
	이원준(요 한)	김준영(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7/08)	박혜정(가타리나)	김태중(예레미야)
	김주연(세실리아)	김시연(엘리사벳)
다음주일 (07/15)	김주연(세실리아)	류기범(요 셉)
	김명은(안 젤 라)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7/08)	문문주 엘리사벳, 최은미 아네스, 배복선 한나
다음주일(07/15)	김명은 안젤라, 조경희 요안나 Fr, 박희영 카타리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 <7월 1일>
- 미사참례 : 83명
- 주일헌금 : \$348
- 교 무 금 : \$490



연중 제 14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천국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7월 8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순교로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굳은 신앙과 불굴의 용기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청하며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합시다.



### 성화해설

용수(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지) 제주교구,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부제 때 일시 귀국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선박을 구입해 '라파엘호'라 명명하고 1845년 신자들과 함께 제물포항을 떠나 상해로 갔다. 그 해 8월 17일 사제품을 받은 후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모시고 조선 입국을 위해 신자들과 함께 라파엘호에 올라 출항했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용수리 포구에 표착하여 배를 수리한 후 재항해하여 황산포에 무사히 도착했다. 제주교구는 라파엘호를 복원하고 용수리 포구를 성지로 선포한 후 기념관과 성당을 건립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2역대 24,18-22

화 답 송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 나 이 다.

- 제 몸을 막아 주는 큰 바위 저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저의 바위 저의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 주시리이다. 저는 주님만 믿삼나이다. 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나이다. ◎
-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해 주소서. ◎

제 2 독서 : 로마 5,1-5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태 10,17-22

### 말씀의 이삭

##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을!!”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무엇인가? 그를 알아보았으되 배신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아니 난 것만 못하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분의 이런 외침과 행동은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흘리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성녀 리이즈의 테레사 딸대로 신부님은 목숨을 내 놓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당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신앙의 불모지 조선땅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선교 활동을 통해 무지한 백성들을 하느님께 인도해야 했습니다. 거짓 배교로 살아남아 더 많은 활동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분의 죽음을 못내 아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님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느님의 뜻은 아님을 확신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박해자들은 무서운 고문과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면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황제 네로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자신들은 잘 보이는 관람석에 앉아 맹수의 밥이 되는 그들을 지켜보며, 이제 는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왜 너는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느냐? 어째서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단 말이나?” “당신은 나에게 음식을 주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 어느 것이 중한가, 음식인가 생명인가?”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두렵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그분에게 내 생명을 내어 드린다.” 이것이 성인들의 이야기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다.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을**” 과격시위에 등장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들이 자신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의 구호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외침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디에서 이런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 함께 나누어요

## 용서의 지팡이

용서는 성경에서 사랑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나 축복 받고 태어난 삶, 살고 보면 그리 길지만은 않은 그 삶을 왜 사랑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가끔은 안타깝다 못해 슬픈 마음마저 듭니다. 하지만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자꾸만 생기니 어쩔 수없이 또 용서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용서할 일이 없어지고, 아무에게도 용서받을 일이 없도록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뜨기까지 그럴 일이 없을 듯합니다.



사실 내가 하게 되는 용서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 다른 듯합니다. 나는 누군가 용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서하려고, 아니 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청하다 보면, 용서의 큰 지팡이를 하느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들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용서를 하느님께 내맡길 때 비로소 가장 평화로움을 선사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마음이고, 행위입니다.

### 고부들의 신앙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의 편지 중 1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 가지고 상륙한 뒤에,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가하다가 관가로 압송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제게 묻기를 “네가 천주교인이냐?” -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더니, “어찌하여 네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들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주리를 틀고서, 관장이 또 말하기를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의 진리를 알려거든 들어보십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신 이요, 착한 이를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는 관장과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여덟 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잡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또한 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배교한 두 사람과 함께 옥에 가두는데, 저의 손, 발, 목, 허리를 어떻게나 몹시 결박하였던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경꾼들이 둘러쌌기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밤이 이슬도록 저들에게 교회의 도리를 설명하였더니, 그들은 흥미 있게 듣고 나서, 나라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자기들도 봉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저의 밧짐에서 중국 물건을 찾아내더니 이튿날 관장이 제게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저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말하기를, “중국 어느 곳에서 사느냐?”라고 묻기에 “나는 중국 광동현 마카오에서 공부하였소. 나는 교우이므로 구경도 하고 또한 교회의 도리를 전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를 하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의 편지에서

(제23신의 발췌, 옥 안에서, 1846년 8월 26일: 이원순, 허인 편저, 1975년, 정음사)